‘강진만 갈대축제’ 체류형 생태관광 新모델 제시

9일간 강진만 생태공원 19만 구름인파
갈대숲 등 생태자원 활용 입체적 동선
갯벌생태전시실·4D입체영상실 등 인기
스탬프투어·페이백 이벤트 소비 선순환
강진원 군수 “생활인구 핵심 동력 육성”


전남광주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최근 열린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은빛 갈대 물결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강진만 생태공원의 천혜 자연환경을 활용한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통해 체류형 생태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간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총 19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는 행사 기간 중 비가 내렸음에도 개막 첫 주말과 마지막 주말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관광객이 몰려들며 남도 대표 가을 축제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실제 전남광주시 북구에서 자원봉사 모임으로 방문한 A(60대)씨는 “갈대밭을 거닐고 직거래 장터에서 쌀귀리를 한 아름 샀다”고 말했다.

버스를 대절해 강진을 찾은 부산 사하구의 B(50대)씨는 “강진만 갈대밭 풍경과 다채로운 먹거리가 일품이었다”고 호평했다.

축제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강진만의 생태 자원 자체를 핵심 콘텐츠로 무대 공연 관람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갈대숲을 걷고 생태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축제장 동선을 입체적으로 기획한 점이다.

생태해설사와 동행하는 생태탐험 코스와 갯벌생태전시실, 4D 입체영상실 등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크게 늘렸다.

특히 갈대숲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2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하는 ‘갈대바라기’ 대회는 자연 속 쉼을 이색 킬러 콘텐츠로 발돋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도 주효했다. 키즈존과 플레이파크존을 조성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환경과 자원순환을 놀이로 엮어냈다.

특정 장소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강진프렌즈 모아모아탬탭!’과 ‘스탬프 투어’ 등의 미션 프로그램을 여러 공간에 분산 배치해 방문객들이 축제장 전체를 야외 체험장처럼 누비게 만들었다.

김용빈의 무대를 시작으로 김제동의 힐링토크콘서트, 송가인, 로보카 폴리 싱어롱쇼, KCM·고유진·더원의 ‘더보컬’ 콘서트 등 세대 통합형 대형 공연도 관광객들의 흥을 돋웠다.

그 결과 향토음식관과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이 문전성시를 이뤘으며 군은 도깨비시장길 행사와 페이백 이벤트, 오감통 자율상권활성화 행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연계 운영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음식점과 숙박업소로 흩어지며 강진 전반에 낙수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올해 축제는 강진만이 가진 천혜의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온 가족이 함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거점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며 “1회성 축제에 그치지 않고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미래 지향적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진=박길종 기자

영광 ‘물무산 행복숲’ 체류형 관광명소 탈바꿈한다

총 100억원 투입 지방정원 조성 추진
모든 세대 누릴수 있는 ‘열린 쉼터’로
머무는 관광 전환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물무산 행복숲’을 사계절 체류형 산림관광 명소인 지방정원으로 탈바꿈시킨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확보한 100억원을 투입해 물무산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숲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사계절 정원과 다채로운 휴양·체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8년 개장한 물무산 행복숲은 10㎞의 숲속 둘레길과 2㎞의 맨발 황톳길(사진), 유아숲체험원 등을 갖춘 산림휴양 공간이다. 특히 황톳길은 지난해에만 약 20만명이 찾을 정도로 치유·힐링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군은 지난달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확보된 100억원으로 핵심 기반 시설을 우선 조성하고 2027년 정원산업 분야 전환사업 신청을 통해 200억원 규모로 정원을 점진 확대하는 2단계 구상도 수립했다.

새롭게 조성될 지방정원은 어린이 놀이시설과 자연 체험 공간, 반려동물 동반 구역 등 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열린 쉼터로 꾸며진다.

기존 무장애 숲길·황톳길을 자연스럽게 잇고 보행 약자를 위한 완만한 산책 동선과 편의시설도 배치할 예정이다.

체류형 관광 거점 역할을 위해 향후 조성될 목조전망대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인 ‘4색4안 순례여행 플랫폼’ 등 주변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나아가 가족 단위 휴양 시설을 검토하고 방문객들의 발길이 영광읍 시가지 상가와 숙박시설로 이어지도록 유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물무산 행복숲이 군민에게 걷는 즐거움과 쉼을 제공했다면 지방정원은 체류형 휴양 기능을 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물무산을 영광의 미래를 품은 새로운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신안군 ‘대한민국 분재대전’ 오늘 개막

1004섬 분재정원 일원 즐길거리 다채
경연·명품 분재·소품 페어전 등 풍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4일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1004섬 분재정원 일원에서 전국 명품 분재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2026 대한민국 분재대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세월이 빚은 유산, 푸른 미래를 품다’를 주제로 열리는 분재대전에는 전국 분재 애호가들의 경연 출품작을 비롯해 군 소장 명품 분재, 소품 페어전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개막식은 6일 오전 11시 황해교류박물관 3층에서 진행된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전문가 해설을 곁들인 전시 작품 도슨트 투어를 시작으로 분재 시연, 분재 교실 등이 운영되며 다양한 먹거리 부스도 설치돼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군은 분재대전을 단순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전시와 체험, 먹거리가 융합된 체류형 관광 행사로 기획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인근 주요 관광지와 상권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전국 명품 분재를 관람하며 분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오래 머물며 즐기는 특화 콘텐츠를 통해 신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3함대 ‘전북함’, 호남 최초 ‘민간상가’ 정비

㈜여수해양과 MRO 18일간 진행
승조원 부담 완화·전투태세 확립



해군 제3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 ‘전북함’이 호남권 최초로 민간 전문업체의 기술력을 활용한 상가 정비에 착수하며 선진화된 국방 정비 체계 구축에 나섰다.

4일 3함대에 따르면 전북함(FFG-I·2천500t급)은 지난 2일부터 전남광주 여수 소재 ㈜여수해양에서 18일간의 일정으로 민간상가 정비를 진행 중이다. 〈사진〉

앞서 3함대는 지난달 13일 해당 업체와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을 체결했다.

정비는 함정의 대형화·첨단화와 병역 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에 맞춰 민간 전문 정비 역량을 군에 도입한 3함대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군은 대규모 정비 작업을 전문업체에 맡김으로써 승조원들의 고질적인 정비 부담을 덜고 본연의 임무인 교육 훈련과 작전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재충전을 통한 전투력 회복은 물론, MRO 기업의 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군 협력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정훈 3함대 군수참모(중령)는 “민간 MRO는 장병들의 정비 부담을 줄이고 전투 준비 태세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조치”라며 “민·군 협력을 지속 확대해 효율적인 정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이남오 함평군수, 현안 국비 확보 총력전

국회 방문 이광재·서삼석 의원 등 면담
국도 24호선·가축분뇨시설 등 지원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4일 “이남오 군수는 최근 2027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경기 하남시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서삼석(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강득구(경기 안양만안)·신정훈(전남광주 나주·화순) 의원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핵심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사진〉

특히 국도 24호선 나산지구 폭원 부족 정비(30억원), 함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12억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국도 병목 구간 해소를 통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노후 처리 시설 개선을 통한 환경 오염 예방 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하는 시기인 만큼 시급한 현안이 실질적인 예산 확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등 군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진도군민 결의대회

주민 생활 안정·골목상권 활력 한목소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최근 향토문화회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기원하고 군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는 ‘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기원 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소득을 보완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농수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진도군으로서는 주민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군은 전 읍·면 순회 설명회와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공감대를 다져왔다. 특히 이재각 진도군수는 지난달 15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시범사업 선정을 강력 건의하기도 했다.

앞서 군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마쳤으며 결의대회에서 모인 군민의 염원을 정부에 전달해 최종 선정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시범사업 선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영암 대불주거단지 정주여건 개선 속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4일 “최근 삼호읍 대불배후주거단지 현장에서 우승희 군수와 관계 부서장들이 ‘정비 로드맵 현장 보고회’를 열어 기반 시설 정비와 편의시설 건립 등 부서별 추진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 계획은 ▲단독주택지 내 도로 확장(6→10m) 및 주차장 306면 확충 ▲청년·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건립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신축 ▲개방형 공원 및 삼호시장 조성 등이다. 대불종합체육공원은 조명과 체육시설을 추가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특히 장기 방치된 23만1천404㎡(7만평)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유휴 부지에는 해군 3함대와 조선업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천600세대 공급을 국방부·LH와 협의할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대불주거단지는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인 곳”이라며 “체육공원과 주차장 정비는 물론, 삼호시장과 문화시설 조성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쾌적한 주거 여건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